

존립 위기 장흥 ‘한국말산업고’ 대책 없나

장흥군·교육부, 특구지정 ‘차일피일’ 운영비 지원도 안돼
학생수 줄고 자격증 취득률 저조...전문인력 양성 ‘헛구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장흥 한국 말산업고등학교가 특구지정 지원과 말관리 유지비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존립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말산업고측에 따르면 말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일반산업계인 대덕종합실업고등학교가 지난 2012년 9월 말산업고교로 개편됐으나 교육부와 장흥군이 특

구지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다 운영비 지원마저 나몰라라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군이 학교개편 때 했던 매년 1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켜지 않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19필의 말사육에 쓰이는 유지관리비만 연간 7000만

원(필당 370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 교육프로그램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 모집이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수 역시 해마다 줄어 정원이 한 학년당 40명으로 전체 120명인데 현재 3학년(24명), 2학년(16명), 1학년(12명) 총 52명으로 정원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교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말조련사와 승마지도사 자격증 취득율이 각각 14%와 22%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희 한국말산업고 교장은 “우리나라 말산업은 산업규모 4조원, 3만명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장흥군이 말산업 특구지정을 서둘러 주고 특화사업지원에서 매년 최소한 5000만원 정도의 말사육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관련 학과체제를 갖춘 곳은 한국말산업고가 유일하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이승욱(왼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지역 특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평가 ‘최우수상’

쌀 판촉·브랜드쌀 육성 등 성과...농정평가 이어 2관왕

강진군이 ‘2019년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 전남도청에서 지역 사·군에 대해 농산물 판촉활동과 유통, 농식품산업 기반구축 및 판매 촉진,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전국단위 공모 선정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전반을 종합 평가한 결과 농식품유통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정평가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강진군은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유통시스템 구축 등 농업인들을 위한 유통·식품·가공산업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농어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선도농업인 473농가를 발굴, 지속적

인 현장중심의 교육 및 판매활동을 추진했다.
올해 지역내에서 농특산물 구입고객이 가장 많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250명의 농업인이 350개 품목을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우리 농산물 구입고객에 대해 구입고객DB를 구축해 평생 고객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고객DB를 활용한 서한문 및 농특산물 홍보물 발송, 주요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서울시(동작구)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신규 소비자 발굴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결과 농식품 유통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과 농업인이 함께하여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였다”며 “앞으로도 유통·가공 지원사업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상생유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흥군, 올해 3관왕 ‘상복 터졌네’

대통령상·국무총리상·전남도지사상 등 휩쓸어

장흥군은 올해 풍성한 수상 성과를 거두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전남도지사상 등 3관왕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에서 장흥군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2년 이상 대한민국의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실천한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
장흥군은 희망가꾸기 주택신축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장흥군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발전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지난 3일 전남도가 주관한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도 장흥군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좋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 것이 수상 성과로 이어



정중순(왼쪽 두번째) 장흥군수가 지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졌다”며 “앞으로도 군민 소득향상과 연결되는 사업을 발굴해 군민행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 무화과 산업특구 ‘우수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포상금 5000만원 받아

영암군의 향토자원인 무화과가 특화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정부로부터 2019년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우수지역특구 시상 및 성과교류회에서 전국 199개의 산업특구 가운데 영암무화과 산업특구가 12개의 우수지역특구에 선정돼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년 이뤄지는 지역특구 운영성과보고는 고용인원실적, 기업 유지실적, 기업 매출액 실적, 규제특례 활용실적, 우수사례 등을 기준으로 1, 2차 평가, 3차 발표평가(프레젠테이션)로 엄격하게 이뤄지며 12개의 상위 지역특구만 우수특구로 지정된다.
영암군은 2015년 국내 무화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무화과산업특구를 지정한 이후 고급화, 표준화,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해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
순점식 영암부군수는 “무화과는 영암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점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대표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군, 귀농귀촌 활성화 전담조직 신설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원주민과 갈등해소 정책도 추진

영암군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할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한다.

또 원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는 ‘귀농인 위주의 정책에 의한 역사별’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민과의 어울림 사업’은 물론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선정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귀농귀촌인들 탓에 각종 사업과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더욱대담과 굴러온 돌의 반목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동행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귀농인 지원 조례’는 지난 2008년 제정돼 지역으로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의 마중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강진군 ‘평생교육 한마당 대잔치’

내일 오후 강진아트홀 하모니카·오카리나 등 공연

2019 평생교육 한마당 대잔치가 11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군민자치대학교 평생학습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선보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평생교육 한마당 대잔치는 아코디언·가야금 연주와 복춤을 추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수료생에 대한 군수 표창을 한 뒤 하모니카, 통기타, 오카리나, 우쿨렐레 연주 등의 무대공연을 펼쳐질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이다.
1층 화랑에서는 서예, 문인화, 민화, 인물화, 한국화 등 수료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아트홀 로비에서는 절편 공예, 도자기 핸드페인팅, 캘리그래피 등의 전시물 및 음식문화대학교와 발효식품과정 수료생들이 조리한 각종 음식과 발효식품이 선보인다.
평생학습은 16개 과정으로 악기, 운동, 공예, 인문분야로 운영 중이며 수료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능을 나누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공 장**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 1170(353.925평) 건물 : 881.9㎡(266.775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7억2천4백4십만원, 최저가 (70%) 12억7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근린주택** 광주 동구 장동 87-2번지 토지 : 125.6㎡(38평) 건물 : 214.44㎡(64.9평) 동명동 메인상권 지상3층 **감정가 4억1천4백만원, 최저가 4억1천4백만원**
- 아 파 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예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70%) 3억9천2백만원**
- 아 파 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70%) 3억7천1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